

현장과 시각

광주소년체전 부끄러웠다



최재호

체육부 차장

“광주에서 소년체전이 열리는 것입니까.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것입니까?”

지난 1일 광주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장을 찾은 전북 선수의 한 부모가 취재자를 찾아와 던진 질문이다. 소년체전을 어린이들 체육행사쯤으로 우습게 여긴 개최도시에 대한 항변으로 들렸다.

지난달 31일 광주에 도착, 길거리 등에서 본 흥분 플래카드 대부분이 소년체전이 아닌 2013년 유니버시아드 유치 기원 내용이었다는 것. 소년체전은 광주거리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의 푸념처럼 14년만에 광주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광주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시민들도 소년체전이 광주에서 개최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흥보가 엉성했다.

경기장 운영도 실통치 않았다. 지난 1일 인라인 경기장에서 선수끼리 충돌사고가 발생, 쓰러진 선수가 구토를 하고 있어도 의료진은 구경만 하고 있다가 학부모들이 비명을 지르자 뒤늦게 들것을 쫓겼다.

육상경기장에서는 경기진행과 관중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항의가 잇따르는 등 각 경기장은 ‘동네 체육행사’ 수준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수영경기장에서는 노령의 여성 자원봉사자 혼자 차량통제를 맡아, 차량이 뒤엉키면서 들고 나는 차들이 20분 넘게 기다려야 했다.

바로 몇개월 전 제88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그때의 광주와는 너무 달랐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엉성했고 대회열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광주소년체전 기간이 광주시의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기간과 겹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시 체육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년체전은 결코 초·중학생만의 체육행사가 아니라 전국에 개최지의 도시역량을 평가받는 계기가 된다.

이번 소년체전은 역대 최다인 1만7천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그만큼의 학부모들도 함께 광주를 찾았다. 무려 3만여명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3~4일을 머물다 갔다. 경제적 성과는 물론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이들이 다시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 가운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미흡했다.

광주시가 스포츠 마케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위해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힘을 쏟았을 텐데, 소년체전이 거기에 희사했다는 것은 어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올 가을에는 전남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광주에서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활용하길 바란다.

lion@kwangju.co.kr

가축법 ‘쇠고기 정국’ 풀까

한나라·민주 입장차 좁혀져... 국회 정상화 돌파구 전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초반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자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쇠고기재협상 촉구결의안 및 개정안 처리를 등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촉구결의안은 수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은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30개월령 미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 금지하는 한편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은 국제협상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의 국내법 신

설로, 국내 문제는 잠재울 수 있을 지 모르나 국제 관례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여권에 불리한 쇠고기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원구성 협상 등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뜻인 만큼 재협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줌으로써 청와대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

청와대와 국민이 직접 대결하는 국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당이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공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지만 정반대로 개정안이 경색된 정국을 풀 수 있는 돌파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 개정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완화된 입장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이 개정안 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더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 등원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정안 논의가 국회의 판단 몫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기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한나라당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등원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0 항쟁 21주년 기념식

‘6·10 민주항쟁’ 제21주년 기념식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시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6·10 민주항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6월 항쟁의 정신과 열정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이 대통령 기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념 메시지, ‘아침이슬’ 합창,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조만간 재개” 힐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일 최근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 만나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6자 회담의 조만간 재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당장 일정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2주 전 워싱턴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들과 만났을 때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대표와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

며 특히 “북한과 일본의 회담은 매우 좋은 신호이며 두 나라의 국익에 더 좋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핵 문제는 “출력 게임이 아니다”며 “현재는 최종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도 어려운 단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을 늦추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에너지 지원 등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백악관앞의 촛불시위

쇠고기 대표단 방문 맞춰 교민들 재협상 촉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연일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9일 국내의 갈등국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상황이 연출됐다.

여당인 한나라당 ‘쇠고기 대표단’이 이날 미국에 도착,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협조를 모색하고 나선 가운데 이날 저녁 백악관 앞에서 쇠고기 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당장 대표단, 미 정부·의회 대상 설득 나서=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권택기, 윤상현, 이달곤 의원 등 한나라당 쇠고기대표단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뒤 곧바로 미국의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를 찾았다. 대표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대표를 만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간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그러나 커틀러 대표로부터 신속한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측이 미국 정부와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밝히기는 이르다”면서 “한국 의회 팀이 온 이유를 충분히 알았으니 관계관들에게 전파하겠다”고 말했다고 황 의원은 소개했다.

◇백악관 앞에서 울려 퍼진 ‘쇠고기 재협상’ 목소리=워싱턴 D.C.와 인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는 교민과 유학생 등 60여명은 때 이른 오후에 현상으로 폭폭 찌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백악관 앞 라파에트공원에 모여 촛불을 켜고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재협상 찬성’, ‘부시 대통령은 광우병쇠고기를 한국에 강요하지 마라’, ‘미국인도 빨났다,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아침이슬’을 부르며 촛불을 들고 백악관 담으로 인도를 따라서 미 무역대표부(USTR) 앞까지 500여m 행진을 벌였다.

/연합뉴스

이석연 법제처장 “쇠고기 장관고시 위험 소지”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일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며 “따라서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쇠고기 합의사항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고시로 정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사태에 따른 인적쇄신의 범위와 관련,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상징적인 인물을 교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약 내가 (교체가 필요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나라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초동대처해야 했는데 초기에 검증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기문총장 내달 3일 취임후 첫 방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부 초청으로 다음달 3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다고 외교부상부가 10일 밝혔다.

유엔 총장 취임 이후 1년 7개월만에 이뤄지는 첫 방한으로, 반 총장은 방한기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무총리와의 면담,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 유엔 한국협회 행사와 청주대학교가 개최하는 도의 유엔총회에 참석하며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외교학 박사학위도 받는다. 반 총장은 우리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에



서 우리나라와 유엔과의 협력강화 방안과 북핵문제 등을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지역분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반 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새 정부의 외교목표 중 하나인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와 유엔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yuten (큐텐) featuring an elderly woman's face and text: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and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Includes product image and contact info: http://www.kyutenpharm.co.kr